

국내경기는 3개월 연속 개선, 상승추세
 ~ 단기간에 반전된 미 대통령 쇼크, 엔화약세·주가상승이 호재료로 작용 ~

(조사대상 2만 3,850사, 유효회답 1만 110사, 회답율 42.4%,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 포인트**
- 1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4.1이 되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미국 대통령선거쇼크는 단기간에 반전되어 엔화약세·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주택착공이나 자동차생산도 호조로 추이하였으며, 국내경기는 지방과 대도시 모두가 개선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의 경기는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나 공공투자 등으로 완만한 상승추세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 『기타』를 제외한 9개 업계가 개선되어 『부동산』 『금융』 『도매』 등 4개 업계에서 개선폭이 1포인트를 넘어섰다. 차기 미 정권에 대한 정책기대로 인하여 미국금리가 상승하였고, 엔화약세도 지속되어 일시적으로 연초 이래 최고치를 웃도는 등 주가상승이 지속된 점이 일부 기업에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또한 11월에 들어 기온이 내려가 계절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활발화되었다.
 - 『호쿠리쿠』 나 『미나미칸토』 『큐슈』 등 전 10개 지역이 2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지방에서의 주택착공호수증가 이외에 도쿄올림픽이나 수도권외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여 지방과 대도시 모두가 개선되었다. 자동차생산의 회복도 공장이 중점되어 있는 지역의 개선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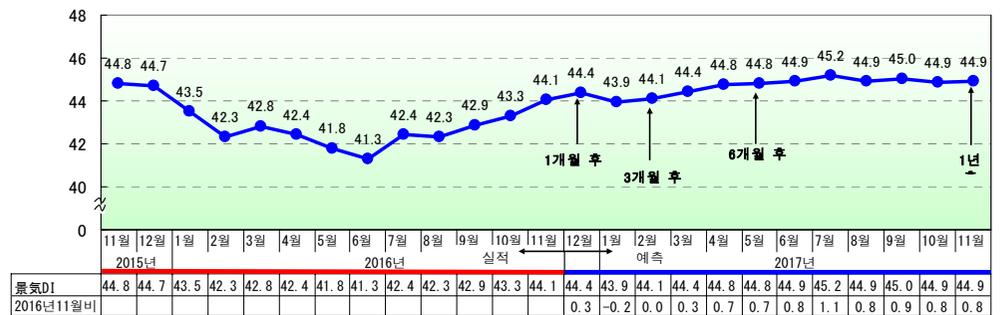
< 2016년 11월의 동향 : 상승세 >

2016년 1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4.1이 되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것은 2015년 3월 이래 1년 8개월 만이다.

11월은 미국대통령선거에 동반한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보였지만 이 쇼크는 단기간에 반전되어 엔화약세·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기업의 호재료가 되었다. 국내의 경기동향은 지진재해복구와 함께 주택착공호수의 증가나 자동차생산 등이 플러스요인이 되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향상되었다. 또한 기온저하로 인하여 계절상품이 호조였던 이외에 경유 등 연료가격이 안정적으로 추이된 점도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 경기는 지방과 대도시 모두가 개선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상승세 >

향후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취임 후 100일 계획」으로 표명된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TPP) 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일본기업의 경영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금리상승 이외에,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동향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증가나 금융완화효과의 침투가 국내경기의 뒷받침요인이 될 것이다. 개인소비에서는 기업의 연말상여금·일시금의 총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외에 취업자수의 증가는 호재료가 된다. 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서서히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경기는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나 공공투자 등도 있어 완만한 상승세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